

**종합**

# 광주에 백범역사공원 만든다

### LH, 학동 옛 백화마을 부지 제공... 2층 규모 기념관도 설립

광주에 백범기념관이 설립된다. 백범 김구 선생의 흔적이 남아 있는 광주시 동구 학동 옛 백화(百和)마을에 지어지는 기념관의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공사) 광주·전남 본부가 제공하고, 건축물 신축은 비영리 민간단체인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가 맡는다.

1일 LH공사와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이하 백범기념협회)에 따르면 기존 백화마을을 전면철거하고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 학동 2구역 5만3948㎡ 내에 2061㎡의 백범역사공원을 조성한 뒤 공원 내부 210㎡에

2층 규모의 백범기념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LH공사는 역사공원 기본 설계를 마치고 광주시와의 디자인 및 공인조성협의를 남겨두고 있으며, 백범기념협회 측은 내년 초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성금 모금과 국비 확보 등에 나설 방침이다.

정영재(53) 백범기념협회 상임이사는 “해방 이후 1946년 광주를 찾은 백범 선생이 당시 빈민층들의 주거 실태를 보면서 참담한 마음에 자신의 강의를 내놓고, 지역유지들도 여기에 참여해 탄생한 것이 이 백화마을”이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이 사

라지고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지만 백범의 숭고한 정신만은 어떻게든 남기고 싶어 기념관 설립에 나섰다”고 말했다.

백범기념협회 측은 시민모금액에 따라 기념관 규모를 결정할 예정으로, 전시품은 서울의 백범기념관으로 부터 광주·전남지역과 연관이 있는 물품을 빌리고,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백범 관련 물품을 기증받아 채울 방침이다. LH공사 역시 역사공원 내부물 백범 관련 조형물과 벽화 등으로 채울 것으로 알려졌다.

학동 백화마을은 지난 1946년 백범

김구 선생이 광주천변에 천막을 치고 연명하고 있던 피난민들을 위해 후원금을 내 조성한 곳이다.

피난민촌 842평에 4~4.5평 정도의 판자집 100가구가 들어섰고 백범이 100가구가 화목하게 지내라는 뜻으로 “백화마을”로 부른 것이 마을의 유래다.

지난 91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이곳은 판자집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165가구의 백화아파트가 들어서게 됐지만 이 주변은 여전히 백화마을로 불리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원전 후보지’ 국회의원들 ‘조심조심’

### 김영록 의원 ‘책임회피식 한수원측 태도’ 강력 항의 박상천 의원 ‘최종 입장 정리 못했다’ 한발 물러나

고흥군과 해남군이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지로 발표된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 박상천 의원과 김영록 의원이 지역 여론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전 유치 문제는 찬반 논란이 거세다는 점에서 선불리 대응했다가는 심각한 민심의 역풍이 불면서 차기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박상천 의원과 김영록 의원은 원전 유치 문제와 관련, 지역 주민의 의견이 우선이라며 한 발 빼는 모습이다.

박상천 의원은 1일 “원전 유치 문제와 관련, 아직 최종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며 “군의회에서 세미나 등을 통해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록 의원도 “원전 유치 문제는 찬반 양론이 맞서면서 지역 내부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며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기 보다는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와의 완충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한수원 관계자로부터 원전 유

치 관련 보고를 받고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이 여론을 수렴해 신청하라는 식으로 ‘책임회피식 유치’에 나서면 어떻게 하느냐”며 강력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원전 유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기 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우선 내세우는 것은 총선에서의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원전 유치는 찬반 양론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지휘봉 놓는 광주시향 구자범

광주시립교향악단 구자범 상임지휘자가 내년 1월 1일부터 광주를 떠난다.

2일 지역문화계와 광주문화회관에 따르면 구자범 지휘자는 광주시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말 이후 경기도립오페라극단 예술감독에 취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립오페라극단은 예술감독이었던 구자범 지휘자가 지난해 10월 송영길 인천시장의 적극

적인 영입에 따라 인천시립교향악단으로 자리를 옮겨가 현재 공식 상태다.

지난 2009년 3월 1일 취임했던 구자범 지휘자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지난 9월부터 광주시와 재계약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오페라극단 운영 지원과 연봉 등에서의 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편 구자범 지휘자는 오는 31일 제아름악회를 비롯해 내년 1월과 2월 광주시향 정기연주회에서 지휘봉을 잡는다.

/김미란기자 mekim@kwangju.co.kr



‘희망 나눔 캠페인’ 출범  
광주시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일 시청에서 강은태 시장과 윤봉근 시 의회의장, 윤길 광주공동모금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 시민성금 모금 운동 전개를 위한 ‘희망 2011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가졌다. (광주시 제공)

# 고흥 ‘원전 후보지 선정’ 찬반 팽팽

### 주민들 ‘핵 저지 발기인 대회’ ‘범군민 유치 추진위’ 양분

최근 신규 원자력발전소 부지 후보지로 선정된 고흥지역 주민간에 찬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고흥군 일부 인사들이 지난달 23일 원자력발전소 유치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남현욱)를 구성한데 이어 반대입장에 선 주민들은 3일 고흥읍 조은취락에서 ‘핵발전소 저지 발기인 대회’를 갖는다.

발기인 추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갑작스런 발표에 고흥 군민들은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군민들의 안정과 생활을 위협하고 후손 대대로 떠안고 가야 할 애물단지

가 될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핵발전소 유치추진위원회와 도양읍 일부 주민들은 지난달 29일 부산시 기장군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견학했다.

유치추진위원회는 오는 10일께 각 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결성, 원전유치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한편, 고흥군에서는 지난 1982년 1월 8일 고흥군 도양읍 장계리 일대 78만평이 원전후보지로 지정고시된후 1998년 10월 30일 주민반대 등으로 인해 해제된 바 있다.

/동부취재본부 = 주각종기자 gju@

### 빛의만평

- 김중두

타이핑 한번 절묘하다

### 알림

#### 희망 2011 나눔 캠페인

#### 어려운 이웃에 사랑을 이어 주세요

한국신문협회 회원사들은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 모금 운동을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은 사회 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 고루 전달됩니다. 나눔의 손길로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

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금 접수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아래 성금 모금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문사에서는 성금을 직접 접수하지 않습니다.

- 모금기간 : 2010년 12월 1일 ~ 2011년 1월 31일
- 모금계좌
  - ▲ 광주 = 광주은행(013-107-373299) ※예금주: (북)공동모금회광주지회(문의 062-222-3566)
  - ▲ 전남 = 농협(617-01-162651) ※예금주: 전라남도 공동모금회(문의 062-651-0222)

한국신문협회 · 光州日報社

### 광주시·전남도 머리 맞댄다

#### 부시장·부지사 내일 회동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선 5기 들어 처음으로 부시장·부지사 실무정책협의회를 갖고 광주공항 이전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도는 오는 3일 송기근 부시장과 이계호 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전남도 실무정책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광주에서 김영선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전남도에서는 이종범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할 예정이다. 양 시·도는 협의회를 통해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을 비롯한 지역 공동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홍영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권익위, 시·도 교육감 ‘선심성’ 논란

####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금 폐지 추진

시·도 교육감의 재량으로 집행이 가능해 선심성 행정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금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금 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원금이 직원복지비나 외유성 국외정비며 장소는 아지 정해지지 않았다. 양 시·도는 협의회를 통해 광주공항 국내선 이점을 비롯한 지역 공동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금은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93

년 도입됐지만, 지원대상이 구체적이지 않고 기준없이 총액으로만 편성되기 때문에 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실제로 권익위 조사 결과 광주교육청은 해외체험연수비용 중 3100만원이 의회 심의에서 삭감되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금으로 11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령 근거 없이 민간단체에 지원하거나 교육감 등 유력인사가 방문한 학교에 비품·기자재 구입, 격려금·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선심지원한 경우도 많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부동산매각공고

####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접 | 건물내 상가 성업중

○ 사건번호 : 광주지법 2009타경 35086호(경매24계)

○ 매각대상 부동산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752-16의 6필지 총대지면적 6,189㎡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752-16, 752-45 위치상 건물 총연면적 8,828㎡  
(태우스파랜드 5층점점방물건 및 상가다수)

○ 최초법사가 (감정가) : 10,193,861,600원

○ 당회최저입찰가 (5차) : 3,651,224,000원

○ 입찰일시 및 장소 : 2010년 12월 30일 (목) 10 : 00  
광주지방법원 경매법정

\*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경주농협 채권관리팀(054-777-8130~4)  
안강농협 채권관리팀(054-761-4485)

2010년 11월 29일

경주농협협동조합  
안강농협협동조합

### 2010년형 금영이 만든 새로운 DVD노래방

#### 가정에서 노래방, 영화, 음악감상, 찬송가까지 부르는 즐거움, 보는 감동까지 느낌이 다르다

#### 즐겁게 부르는 노래는 '치매' 를 예방합니다

노래방기기 1등 기업인 금영이 제품은 노년에 쓸쓸한 부모님 효도 선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제품이다. 연말연시 가족모임이나 생일파티 등에 안성맞춤이다. 해외교포 선물로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 정품마크 2개, 대형 리모컨, 노래책자 제공

▶ 구입문의 02-522-4355

### 성공한 남자의 손목에는 언제나 JAKAL-

#### '35년 전통' 수공예 명품시계

#### 300점 한정 생산 판매 자동기계식 명품시계

오성코리아는 최근 35년 전통의 쥘렌트 시계가 야심 차게 만든 100% 수공예 시계 '자칼 핑크플라드 빅워치'를 출시했다. 300점만 한정 생산하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가격 대비 품질과 디자인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우선했다. 우선 디자인이 수백만 원대의 해외 명품시계 못지않다. 도금부터 엘로우 골드까지 아닌 핑크골드로 처리해 세련미를 더했다. 미네랄 라운드 강화유리를 채용해 스크래치 걱정이 없으며 최고급 소가죽 밴드를 사용했다. 클래식한 아라비아 숫자 판과 버클과 밴드에 자갈 로고를 새겨 넣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또한 철저한 A/S도 장점이다.

기능도 한층 강화됐다. 일본 완제품 자동 무브먼트와 기계식 자동원리를 채용했다. 날짜와 요일표기는 물론

년·월·일 표기, 낮과 밤 표기 기능까지 채용해 활용성이 높다.

회사 관계자는 “300대만 한정 생산하는 제품으로 희소성이 높고 가격이 합리적 이면서 디자인과 기능이 뛰어나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다”며 “남자의 멋을 한층 돋보이게 제작 됐으면서 정장은 물론 캐주얼에도 잘 어울릴 실용적”이라고 말했다.

(MADE IN KOREA)  
02-522-7667

### 암을 다스리는 해조과학 후코이단

#### 암을 다스리는 후코이단

세계는 왜 후코이단을 주목하는?  
항암식품으로 널리 알려진 차가버섯, 산삼, 폴리페놀스 등은 면역세포를 강화시키거나 그 작용을 돕는 역할에만 그친다. 그러나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후코이단은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강력한 항암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아포토시스(Apoptosis: 세포의 자가소멸, 자살)라 한다. 후코이단은 암치료 및 예방에 응용할 수 있는 대체의학의 꽃으로 일본과 미국, 유럽의 선진국에서 각광받고 있다.

암을 극복한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 (본문 중에서)

위암 재발 방지를 위해 먹기 시작한 해조 후코이단 덕분에 위암 전이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고 몸상태도 크게 호전되었다.

유방암 유방 절충수술 후, 남아 있는 한쪽 유방에도 암이 전이될까 두려웠는데, 해조 후코이단을 꾸준히 복용한 결과 전이가 일어나지 않았다.

전립선암 전립선에 생긴 암이 빨리 전이되었지만 수술이나 화학요법을 받긴 무리라고 했고, 또 QOL유지를 위해 해조 후코이단을 선택했다. 그 결과 PSA수치가 기적적으로 낮아졌다.

난소에서 폐, 간으로 전이된 암 난소암이 폐와 간으로 전이되어 무척 힘들었는데 해조 후코이단 복용 후 폐암은 사라지고 간암도 많이 호전되었다.

대장암 2달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았으나, 해조 후코이단이 지난 아포토시스, 혈관신생 억제, 면역부활작용 덕분에 대장의 암덩어리가 줄어들고, 1년이 지나도록 건강하게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뇌종양 방사선요법의 부작용을 덜기 위해 해조 후코이단을 먹은 것이 최상의 선택, 덕분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고 종양이 점점 사라지는 중이다.

암세포만을 골라 자살(아포토시스)로 몰아넣는 후코이단 전 세계 1,000여편의 논문이 증명한 놀라운 기능!

무료주문전화 070-7809-5151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매비 2,400원 본인부담)